

광주학강초 학생 34명 “동시 작가 됐어요”

광주학강초등학교(이하 광주학강초) 학생들이 ‘동시 작가’로 등단했다.

‘동시 작가’로 데뷔한 학생들은 교내 독서 책쓰기 동아리 ‘동시하강’ 4학년 회원 34명이다. ‘동시하강’은 광주학강초가 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 저자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운영하고 있는 독서 책쓰기 동아리다.

학생들은 동아리에서 독서 토의, 감상, 동시 쓰기 활동 등을 하며, 문학적 감수성과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에는 5학년(현재 6학년) 학생 30명이 시집 ‘들리나오, 우리들의 파도 소리’를 선보였으며, 올해는 4학년 학생 34명이 각 10편씩 총 340편의 동시를 모아 ‘오늘 우린 믿음’을 출간했다.

특히 문주영 학생의 ‘철쭉과 별’, 박지유 학생의 ‘사촌동생 노래’, 한수민 학생의 ‘밤의 사자다워’, 김나은 학생의 ‘불안한 소리’ 등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시부터 가족과의 에피소드 등 다양한 작품을 담았다.

광주학강초는 학생들의 ‘동시 작가’ 등단을 축하하기 위해 지난 2일 시청각실에서 “오늘 우린 믿음” 출간 기념 낭송회를 개최했다.

이날 낭송회에서는 ‘동시 작가’로 데

동시집 ‘오늘 우린 믿음’ 출간... 가족 이야기 등 340편 담아



광주학강초등학교(이하 광주학강초)는 지난 2일 본교 시청각실에서 교내 독서 책쓰기 동아리 ‘동시하강’ 4학년 학생 34명 학생의 동시집 발간과 작가에 뷔 축하 기념으로 하고자 ‘출간 기념식’을 개최하고 사냥송회를 진행했다.

뷔한 11살 어린이가 작가들이 문학적 성과를 나누며 가족, 친구, 독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가는 학생은 “처음에는 시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는데, 선생님 지도를 받아 한 줄, 두 줄 쓴 것을 시집에 담았다”며 “앞으로도 독자와 글쓰기를 꾸준히 해 나만의 이야기를 담는 작가가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들 최정환 군을 축하하기 위해 낭송회에 참석한 김민희 학부모는 “동시 쓰기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동시집을 출간하게 된 걸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꿈을 키우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또 광주학강초는 시집 ‘오늘 우린 믿음’에 대해 국제표준 도서번호 ISBN을 발급받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 비치

할 예정이다.
최재오 교장은 “1년 동안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며 꾸준히 동시를 읽고 쓰며, 동시집 출간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어린이 시인들이 자랑스럽다”며 “이번 시집 출간을 계기로 학생들이 독서와 글쓰기에 더 관심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건보공단 광주전라제주본부, 광주지방세무사회 소속 직원

변경된 건강보험 제도안내 교육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본부장 이영희)는 12월 2일(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3일(수) 전주교육대학교 황학당에서 광주지방세무사회 소속 직원 2천여명 대상으로 변경된 건강보험제도 안내와 사업장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내용은 바뀐 연발정산제도, 사업장 적용·탈퇴 등 자격·부과 관리와 EDI(전자 문서교환시스템) 효율성, 전자고지 신청 편리함 등 내용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진행되었다. 이영희 본부장은 “세무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현장 중심의 정확한 제도 안내와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본부에서도 건강보험제도 교육과정을 정식 편성하여 4대 사회보험 자격·부과 신고 오류를 줄이기 위한 교육과 직장가입자 하위취득근절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교육내용은 바뀐 연발정산제도, 사업장 적용·탈퇴 등 자격·부과 관리와 EDI(전자 문서교환시스템) 효율성, 전자고지 신청 편리함 등 내용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진행되었다. 이영희 본부장은 “세무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현장 중심의 정확한 제도 안내와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승원 기자



보성군, 12월 ‘달모임’에서 자원봉사의 의미 되새겨

“퍼져라 자원봉사! 커져라 온기나눔!” 모두가 행복한 12월

보성군은 지난 1일 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따뜻한 나눔과 봉사로 모두가 행복한 12월 ‘달모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달모임에서는 오는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해 보성군여성자원봉사협의회(회장 김미숙) 회원 39명과 공직자 150여 명이 함께 나눔과 자원봉사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행사는 ‘달톡(달모임 + Talk)’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직원 자유발언, ▲여성자원봉사협의회 활동 소개 등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직원 자유발언과 함께 상영된 ‘자원봉사 활동 영상’은 여성자원봉사협의회 회원들의 봉사 모습을 담아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었고, 직원들은 영상 속 봉사

자들의 노고에 박수를 전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은 ‘퍼져라 자원봉사! 커져라 온기나눔!’ 구호가 적힌 꽃말을 들어 올리며 지역사회 나눔 확산의 의지를 다졌고, 직원들은 감사의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으로 화답했다.

김철우 군수는 “보성군의 따뜻한 변화는 군민과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헌신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보성을 만드는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매년 자원봉사자 대회를 통해 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달모임과 연계한 새로운 방식의 감사 행사를 기획했다.

보성/김운기 기자

한농연·한여농 합평군연합회,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성료

배추 정식부터 김장까지... 농업인 재능기부로 이웃 사랑 실현

전남 합평군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합평군연합회와 (사)한국여성농업인 합평군연합회가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 나눔을 실천하며 따뜻한 지역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합평군은 3일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합평군연합회(회장 심재식)와 (사)한국여성농업인 합평군연합회(회장 이은정)이 지난 2일 합평군 농업기술센터 플라워푸드 교육장에서 김장 나눔 행사 성공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두 농업인 단체는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지난

8월 말 배추 정식을 시작으로 약 3개월간 정성껏 키워온 배추를 키워온 것으로, 지역에서 기른 신선한 배추로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하려는 농업인의 진심 어린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올해 김장 나눔 행사에는 양 단체 회원 60여 명이 참여했으며, 최근 일주일간 수확·절임·물빼기 등 사전 작업을 거쳐 행사 당일 김장김치를 담그며 따뜻한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두 단체는 총 400박스의 김장김치를 정성껏 마련했으며, 이를 지역 내 복지시설과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김장 나눔 행사는 두 단체가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역할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평가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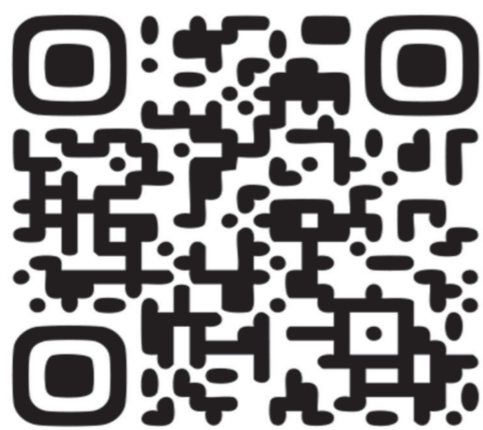
이 밖에도 한농연과 한여농 합평군연합회는 쌀 나눔, 영농 지원 등 다양한 지역 봉사활동을 통해 농업인 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심재식 한농연 회장은 “이번 나눔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은정 한여농 회장은 “농촌의 정성과 마음이 담긴 김치가 이웃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준비 과정부터 김장까지 모든 과정에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고 전했다.

합평/전광춘 기자

건강보험 임신·출산 관련 제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난임 시술 (보조생식술) 급여제도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전남지방우정청,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키트 후원

전남지방우정청(청장 직무대리 김기홍)은 지난 2일 광주광역시 내 자립준비청년 20명에게 약 1,500만 원 규모의 자립키트를 후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전남지방우정청 소속 직원

들의 자발적인 성금 모금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와 연계하여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퇴소 후 독립을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첫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기획

“12월 산타” 서구아너스, 아이들 100명 소원 이뤄줘

소원성취 희망선물 후원금 3000만원... 손글씨 사연 받아 대상 선정

광주광역시 서구 고액 기부자 모임 ‘서구아너스’가 12월 산타가 되어 아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한다. 서구는 3일 서구아너스로부터 지역 아동·청소년을 위한 ‘소원성취 희망선물’ 후원금 30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서구는 2013년부터 매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지역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기 공모전을 열어 소원을 들어주는 ‘희망플러스 소원성취 프로젝트’를 진

행하고 있다. 올해 공모 주제는 ‘나에게 꿈과 희망이 되는 나를 위한 선물’로 총 228개의 사연이 접수됐고 심사를 거쳐 최종 100명이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들의 사연이 눈길을 끌었다. A양(11세)은 “지난 10월 엄마의 머리에 종양이 발견됐고 지금은 병원치료를 받으며 집에서 누워 생활하신다”며 “2~3일쯤 이불 빨래를 하느라 고생하시는 엄마

를 위해 항균이불패드 세트가 꼭 필요하다”고 손글씨 사연을 접수했다. B군(9세)은 “엄마가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손이 아프시다”며 손안마기를 신청했다. C양(8세)은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동생과 고생하는 엄마를 위해 장난감 소동기를 희망했다.

이 외에도 멋진 책가방, 따뜻한 패딩점퍼, 책상, 도서, 운동화, 키보드, 자전거 등 아이들이 평소 갖고 싶었던 선물 요청도 다양하게 접수됐다. 서구는 12월 중 각 아동에게 1인당 30만원 이내의 맞춤형 선물을 전달할 계획이다.

/박석우 기자